

가정 추모 예배

인도자: 각 가정의 대표

예식사 인도자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000님의 () 주기 추모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 인도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단7:18)

기도 인도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000님의 추모예배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시며, 주님의 말씀만이 인생의 꽃대
임을 고백하니 저희 집안 가운데 은혜 베푸시옵소서. 또한 먼저 가신 고인의 믿
음과 가르침을 잘 받들어 남은 여생 믿음으로 살고, 서로 하나 되어 돕고 섬기는
귀한 가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함께

1. 지금까지 지내 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2.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3. 주님 다시 뵈 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벼를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말씀봉독 베드로전서 1장 24-25절 다함께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변합니다. 자동차, 옷, 음식, 가구, 강, 산, 건물 등 모든 것이 처음 때와는 다르게 변하게 됩니다. 색깔도 변하고 모양도 변하면서 닳아 없어 집니다. 썩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아기로 태어났지만 언젠가는 그 육체가 썩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썩지 않고 변하지 않으면 좋을텐데, 왜 이 세상은 썩으면서 변해가는 것일까요? 그것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죄는 우리 육체와 이 사회와 모든 것들을 오염시켰고 타락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영원할 수가 없고 언젠가는 썩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썩어짐에서 해방될 수 있음을 알려 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육체가 썩을 줄 알았는데, 부활의 생명으로 썩어짐에서 해방되신 것입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는 썩어짐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추모하는 고 000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을 소유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에 000님의 영혼은 썩어짐에서 해방되어 지금 영생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살아 계셔서 더럽지 않고 죄하지 않는 하늘의 유업을 받아 누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남아 있는 우리는 어떠한 해야 하겠습니까? 무엇에 집중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썩을 것이 아닌, 썩지 않는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잘 사는 길인 것입니다.

추모 일을 맞이하여 고인을 기리는 이 시간, 우리가 오직 예수로 살고 죽을 때, 하늘에 계신 고인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고인께도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삶 다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2.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3. 어둔 골짜기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후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